

찬송가. 새552(통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1.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후렴)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2.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3.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4.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맘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찬송가. 새384(통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1. 나의 갈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 나의 갈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 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 나의 갈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하셨네

Q. 추모예배란 무엇입니까?

먼저 추도(追悼)예배와 추모(追慕)예배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도(追悼)란 '죽은 이를 생각하며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경우 이것은 교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추도라는 말 보다는 추모라는 말이 더 좋은 것이, '죽은 이를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생존 시 잘 해드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지만, 사후에 그분들이 남기신 신앙과 업적을 다시 돌아보며 그 은덕을 기념하고 또한 계승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성도 하고, 가족끼리의 친교와 사랑을 도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경건하게 드리는 것이 추모예배인 것입니다.

2022년 설날가정예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예배를 준비하면서

- 가족 중에 사회자를 정합니다.
- 찬송은 첫째 자녀가 선창합니다.
- 기도는 어머니(혹은 가족 중)가 합니다.
- 설교는 "제가 읽겠습니다"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2022년 설날 감사 예배

조용한 기도로 설날 감사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 조용한 기도 다같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평강 중에 지내게 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설 명절 이 아침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찬 양 새552(통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다같이

• 기 도 가족 중에서

• 성 경 봉 독 시편 128편 사회자

-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 2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 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 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 5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 6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 말 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축복의 가정 사회자

• 찬 송 새384(통434)장 /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같이

• 나 눔 다같이

- * 선조들의 유언이나 교훈되는 말씀을 나눕니다.
- * 부모님(어른)이 자녀들에게 축복과 뜻있는 덕담으로 권면합니다.
- * 가족소식(한 해 계획이나 소망, 기도제목)을 돌아가며 나눕니다.

• 가 족 기 도 다같이

* 나눈 이야기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 후 사회자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 주 기 도 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축복의 가정』

귀한 소명의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한 달을 지내며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였습니다.
새해의 출발점에 서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환경의 조건이 아니고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가정은 관계가 출발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가치관을 배우고 삶의 살아가는 방식을 배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와의 관계로 부터 여러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지만 보다 우선해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시간을 주고 계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분과의
관계입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 우리 가정의 참된 행복은 우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룰 때
주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교육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8편 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했고,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했습니다.

모든 것에 성공했어도 신앙생활에 실패했으면 그 일은 실패입니다. 사업에서 실패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승리했다면 그는 복되고 참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을에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합니다.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농부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그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올해는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올 한해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가정에
들어오면 사랑스런 아내의 넉넉한 배려가 있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로 인해 사랑이
꽃피는 식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의 신앙으로 굳게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게 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이어가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며 좋은 명절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